

정년퇴임에 임하여



최기형 전(前)교장선생님

사랑하는 동산고 학생여러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학교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이루지 못한 성과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걱정도 하게 되겠지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일상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어린이이도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웃고 울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凡事(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행복은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도 부모님, 친구들,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행복감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면 불행이 아닐까요?

교생실습을 마치고 떠나는 예비 선생님들이나, 일정 기간 근무하다 가시는 교직원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다보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간혹 힘든 일, 마음 상했던 일도 있었겠지만, 모든 분들이 '즐겁고 보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꼭 '동산에서의 좋은 기억만 간직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관계든 업무 면에서든 좋은 기억이 곧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만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다시 일어설 수가 없으며, 낙천적으로 힘을 내서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성공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바람뽕 하여도 너는 바람뽕(風) 하여라.’ 라는 속담이 있듯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소홀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훌륭한 제자들이 바르게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산인 여러분!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동산에 들어가 36년 6개월 동안 교직생활을 하고 2월말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동산에서 생활했던 날들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때로는 힘든 일과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매년 2월말 신학년도를 준비하며 담임할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 가장 설렘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만나 1년 동안 나를 믿고 따르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스승의 날에 인사를 오거나 연말에 술 한 잔 대접한다고 전화를 할 때 행복했습니다. 물론 좀 더 학생들에게 잘 해 줄걸,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 한 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어느 학생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나는 바람뽕 하여도 너는 바람뽕(風) 하여라.’ 라는 속담이 있듯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소홀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훌륭한 제자들이 바르게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퇴임에 임하여, 평생직장이었던 동산학교와, 함께 지냈던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동산의 영원한 발전과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